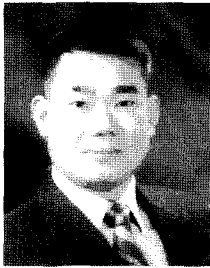


# 사육성적 15% 높이는 쉬운 방법(1)



유 재 석 협력소장  
(주)TS해마로식품 충청지역

## 머리말

육계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계시장은 생산과 유통 등 전반적으로 기반이 무너져 있으며 현재도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사료값은 계속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육계 사료값은 향후 IMF수준인 포대 당 10,000원대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병아리 가격 역시 현재 수당 600원이고 연료비, 약품비, 인건비 등 제반 생산 원자재 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러나 사육수수료나 육계 가격은 턱없이 생산 비용 이하로 낮아지고 있으니 업체나 생산자나 모두 제2의 위기를 맞고 있다. 더군다나 필드에서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병아리(실용계)의 품질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농장마다 클레임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사료 역시 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현장의 생산성은 극도로 낮아지고 있다.

결국 이런 요인들에 의해 우리의 경쟁력은 자꾸 낮아지고 있고 생산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 1월 동절기의 이상적인 육추실 꾸미기
- 2월 병아리 무게와 사육성적과의 관계
- 3월 환절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관리요소(1)
- 4월 사육성적 15% 높이는 쉬운 방법(1)**
- 5월 초산 및 노계병아리가 출하중량에 미치는 영향
- 6월 출하 시 중량체크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
- 7월 열사 및 무더위에 대한 대책
- 8월 환절기에 가장 중요한 관리요소(2)
- 9월 사육성적 15% 높이는 쉬운 방법(2)
- 10월 질병발생을 사양관리로 극복하는 방법
- 11월 깔짚 종류에 따른 사양관리 방법(톱밥, 왕겨, 볏짚)
- 12월 육계사육 시 안전사고 유형과 대책

다. 계열주체나 생산자 모두 공존관계에서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육계업계의 미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 역시 1%도 못 미치는 육계시장에 관심을 두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말고 우리들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일이라 판단된다. 그래야 정부에서도 관심을 줄 것이다.

사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오면 아직은 큰 염려는 없다.

문제는 사육성적을 꾸준히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번 달에는 계절적으로도 닭을 사육하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평소 사육성적이 좋지 않거나 지난 동절기에 질병출하를 했던 농장에서는 몇 가지의 사육 방법들에서 변화를 준다면 15% 정도의 성적향상은 무난할 것이다. 그 방법들을 알아보자.

사육성적이 꾸준히 좋은 농장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초기폐사(7일령까지)가 적다.

두 번째는 7일령이나 14일령까지 강력한 도태를 한다.

세 번째는 입추가 되면 외출을 줄인다(농장을 비우지 않는다).

## 1. 초기폐사를 줄여라

사실 육계사육을 해 본 관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다.

“그래! 누가 몰라? 병아리가 나빠서 죽는 걸 어떻게 해!” “병아리만 좋아봐라. 내가 죽이나” 이렇게 위안을 한다. 그러면 필자는 말한다.

“사장님. 오~죽하면 병아리가 죽겠어요?”

초기폐사가 많은 농장은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어린 병아리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물통이 충분히 있는가?

즉 병아리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물이 있어야 하고 찾아가지 않아도 가까이 있어야 하며, 있다고 해도 쉽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먹을 수 있어도 멀리 있으면 안되며 가까이 많이 있어도 병아리가 먹기 어려우면(물 담긴 높이, 급수기 높이, 급수기 크기, 물의 양 등) 실패하게 된다. - 병아리 입장에서 급수문제를 접근해보자.

2) 입추당일 바닥 깔짚 온도는 낮지 않은가?

계사온도도 중요하지만 병아리의 다리가 처음 닿는 깔짚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

깔짚 온도는 병아리가 처음 다리에 닿을 때 29℃ 이상 유지되어야 정상관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으면 설사를 하거나 약추가 생기거나 관절에 영향을 주며 난황흡수에 악영향을 준다. 바닥 깔짚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병아리 입추전날 예열을 미리 하고 입추당일날도 충분한 가온을 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은 매우 관심을 가져야 하며 봄, 가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깔짚 두께도 충분히 깔아줘야 한다.

3) 바닥에 습도유지를 위해 비닐을 깔지 말 것

초기폐사가 많은 대부분 농장은 입추당일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사료나 물을 뿌리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관리가 아니다. 행여 가슴장치가 없어 바

다에 물을 뿌려야 될 상황이라면 반드시 종이를 깔고 물을 뿌려줘야 한다. 사료를 줄 때도 종이에 뿌려주는 것이 좋고 필요시 사료를 2~3일 영양제 탄 물에 개서(연이사료) 1일 5~6회 조금씩 뿌려주면 매우 도움이 된다.

특히 초산(35g이하) 병아리가 입추될 때는 반드시 연이사료를 급여해야 초기폐사를 줄일 수 있다. 사육규모(5만수 이상)가 커서 육추실 종이를 깔기 어렵다면 입추규모를 줄이거나 인건비가 들더라도 인부를 통해서 반드시 종이를 깔고 육추해야지 쉽게 비닐을 깔고 육추하면 초기폐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 4) 계분은 반드시 치워라.

요즘 계분을 치우기가 지역마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발효를 시켜서 육계사육을 하는 농장들이 많다. 그러나 초기폐사가 많은 농장은 반드시 계분을 치우고 병아리를 입식해야 한다.

때로는 계분을 재활용해서 훌륭한 성적이 나오는 농장도 있지만 1년에 1~2회는 사육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계분을 치우지 않고 사육한 농장이 초기폐사가 많다면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을 인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계분을 치울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계사 옆에 계분을 모아서 비닐로 여러 겹 덮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 2. 7일령과 14일령에 강력한 도태를 한다

우리가 흔히 사육성적의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으

로 생산지수를 활용하게 되는데 생산지수의 4가지 요인들은 일령, 사료요구율, 평균중량, 출하율 등이다. 이 네 가지 중 일령과 사료요구율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 평균중량과 출하율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중 인위적으로 한 가지를 낮추면 육계 사육의 특성상 나머지 세 가지 요소들이 좋아지는데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 출하율이다. 물론 출하율이 높으면 좋지만 병아리를 입추해보면 균일도가 매우 좋은 병아리일지라도 입추 후 3~4일 지나면 부화장에서 선별이 약해서 총아리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이때 작은 병아리라도 정성껏 키워서 약간 작더라도 출하를 하는 농장이 있는 반면 7일령 때 1차로 강력하게 선별도태를 하고 14일령 때 2차로 강력하게 선별해서 도태를 하는 농장이 있다.

이 두 농장의 사육형태를 비교해보면 강력한 선별을 하는 농장은 출하율은 약간 낮지만 출하 후 성적을 보면 일령과 사료요구율은 낮아지고 평균중량은 높아져서 결국 수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며 질병 발생도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균일도도 매우 좋아진다.

선별도태하는 방법은 개방계사에서는 7일령과 14일령 모두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켜주지 말고 2시간 정도 자연 소등을 해주고 2명 정도 후레쉬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루나 포대에 약추를 담아서 도태하면 된다. 이 때 빠진 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찰해야 하는데 폭 10m 계사에서는 2.5m씩 갔다 왔다 해서 총 4번을 다녀야 완벽한 도태를 할 수 있다.

무창계사 역시 조도를 20% 정도로 조절해놓고 마찬가지로 어두운 상태에서 후레쉬를 가지고 약

추를 선별해서 완벽하게 도태하면 된다. 무창계사도 3m씩 갔다 왔다 4회를 해야 빠지는 구역이 생기지 않는다. 선별도태 후 다음날은 스트레스 제제나 비타민 AD<sub>3</sub>E제제로 반드시 1회 크리닝을 실시해 준다.

### 3. 외출을 줄인다(농장을 비우지 않는다)

양계산업의 대부인 전 천호그룹 이계조 회장님 말씀 중에 “닭은 관리자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크다”라는 말이 있다. 입추가 되면 누구나 외출을 줄이고 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1년 이상 육계사육을 하다보면 이런 초심들이 흔들리기 쉽다. 생각해보면 닭을 늘 잘 키우기 위해 외국의 특별한 기술적인 방법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인 관리가 성공사육의 키워드이다. 관리자가 외출을 자주하다 보면 사육성적이 정상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데 이때부터 관리자는 그 원인을 병아리나 사료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슷한 농장에 같은 회사의 사료와 병아리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농장마다 성적이 다른 이유를 분석해보면 일부는 관리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관리자가 원인을 쉬운(병아리나 사료)쪽으로 선택함으로써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관리자가 외출만 않는다고 닭이 잘 크는 것은 아니며 마음만이라도 집중력을 갖고 사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관리기간 중 외출은 안전사고나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 계군이 문제되는 시기는 공교롭게도 관리자가 외출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맺음말

육계를 사육하면서 비용지불을 최소화하면서 사육방법들을 변화시켜 성적을 향상시키는 요인들이 매우 많다.

계절적으로 사육환경이 좋아지는 이때 관리자가 현실에 맞게 농장에 적용시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사육성적은 특별한 기술적인 방법보다는 병아리 혹은 닭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한다면 그들은 관리자에게 수익성을 좋게 해줄 것이다.

닭을 이해시키려 하기보다는 닭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리자는 맞춰줘야 함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이 시기에 성공사육을 기대해본다. C

